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이슈브리프

미국의 그린뱅크 추진현황

e-sports의 성장과 한국의 위상

국제금융시장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주간 KDB리포트 Contents

이슈브리프

미국의 그린뱅크 추진 현황 ····· 1

e-sports의 성장과 한국의 위상 ····· 3

국제금융시장 ····· 5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 9

미국의 그린뱅크 추진 현황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유 지 혜 (ester80@kdb.co.kr)

◆ 미국은 '09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청정에너지보안법(ACES Act) 제정을 추진하면서 그린뱅크 설립을 지원하는 그린 캐피탈 연합(CGC, Coalition for Green Capital) 신설

◆ CGC는 코네티컷 그린뱅크를 시작으로 미국 내 그린뱅크 설립뿐만 아니라 개도국 그린뱅크 설립 지원, 글로벌 그린뱅크 모델 설계를 위한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 수행

◆ Green Bank Design Summit 등 글로벌 그린뱅크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 예상

□ 미국은 '09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청정에너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그린뱅크 설립을 지원하는 그린 캐피탈 연합(CGC, Coalition for Green Capital) 신설

○ 그린 캐피탈 연합(CGC)은 그린뱅크 설립 및 금융 지원을 통해 청정에너지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비영리단체로 초기에는 연방정부 차원 그린뱅크 설립을 목표

- CGC는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민간투자 유입을 활성화하여 자본비용을 줄이는 그린뱅크 기법을 공유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미국 주 단위 그린뱅크 설립에 기여

* ACES(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 EU 배출권거래시스템(ETS)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음

그린뱅크 테크닉 6가지

문제	해결방안	세부내용
인지된 프로젝트 위험 (Perceived project risk)	신용보강 (Credit Enhancement)	· 그린뱅크가 신용보강을 통해 민간자본이 감당할 수준으로 리스크와 자본비용을 낮추어 공공부문 비용 최소화 가능
규모의 비효율 (Inefficiencies of scale)	통합 및 관리 (Aggregation and warehousing)	· 소규모이고 지역적으로 분산된 프로젝트의 경우 그린뱅크가 대출채권 통합(pooling) 관리하며 추후 유동화, 민간자본 대체
최초의 거래 (first-in-kind transactions)	기술적 지원 (Technical assistance)	· 기술 또는 거래유형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그린뱅크가 계약과정과 대출서류를 표준화하여 자본비용을 낮출 수 있음
낮은 경제성 (Marginal economics)	공동 투자 (Co-investment)	· 그린뱅크는 선순위, 후순위채 등 금융구조를 활용하여 공공-민간 레버리지 레벨을 조정하여 필요한 gap financing 제공
고객신용등급 또는 주택소유주	요금납부식 융자 (On-bill financing)	· 고객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에너지 업그레이드 대출이 상환되는 구조
고객 지식 (Customer Knowledge)	정보공유 및 조정 (Information sharing and coordination)	· 청정에너지 솔루션의 가치, 과정, 구매옵션(보조금, 대출지원, REC 조달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공유 및 조정

자료 : Coalition for Green Capital 홈페이지

□ CGC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그린뱅크 모델 수립을 위한 플랫폼 구축 활동 수행

○ CGC는 '11년 코네티컷 그린뱅크 설립을 시작으로 지역 그린뱅크와 그린뱅크 컨소시엄 신설 등 그린뱅크 인큐베이터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

- '19년 국가기후은행법(National Climate Bank Act) 제정에도 전문가그룹으로 참여
- '19년부터 CGC는 아프리카 6개국 그린뱅크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그린 캐피탈 연합(CGC)의 주요 프로젝트

프로젝트	세부내용
글로벌 그린뱅크 네트워크	· **(Green Bank Network)** '15년 파리 당사국총회에서 설립된 글로벌 그린뱅크 네트워크로 8개 그린뱅크가 회원으로 참여하였고 CGC와 NRDC*가 공동으로 사무국을 맡고 있음 * 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과학자, 변호사, 정책지지자 등 500여명 전문가 집단 · **(Green Bank Design Summit)** '19년 파리에서 열린 첫 글로벌 그린뱅크 포럼으로 24개 이머징 국가(세계 GDP의 27%, 탄소배출 44%)가 청정에너지 투자를 위한 새로운 모델 개발에 참여
미국 그린뱅크 컨소시엄	· '19년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 내 그린뱅크 커뮤니티를 통합하기 위해 CGC가 주도하여 신설하였고, 주별 그린뱅크, 투자자, 디벨로퍼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로 지역 그린뱅크의 투자현황, 트렌드 보고서인 **Annual Industry Report**를 발간하고 **Green Bank Summit**을 개최
개도국 그린뱅크 설계	· '19년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기후투자펀드(Climate Investment Funds)와 함께 아프리카의 그린뱅크와 국가기후변화기금 신설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
Clean Energy Jobs Fund	· CGC는 미 국회의 환경, 금융 커뮤니티에서 파트너로 일하며 저탄소 부문 일자리 500만개 창출을 위한 국가 Clean Energy Jobs Fund(350억 달러 연방기금)를 만드는데 관여 · Clean Energy Jobs Fund는 대규모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거나 소규모 프로젝트 투자를 위하여 지역 그린뱅크에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과 그린뱅크가 없는 지역에 기술 자문 및 그린뱅크 설립 지원 역할 수행
미국 지역 그린뱅크 신설	· CGC는 미국내 그린뱅크 전문가그룹으로 정부, 시장참여자, 지역사회 리더들과 함께 일하며 각 시장의 투자기회, 에너지 니즈를 파악하고 측정, 설계, 적용, 그린뱅크 운영에 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콜로라도, 오하이오주, 뉴저지 등)

자료 : Coalition for Green Capital 홈페이지

□ Green Bank Design Summit 등 글로벌 그린뱅크 네트워크는 점차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20.7월 미국의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이 델라웨어 선거유세에서 발표한 2조 달러 청정에너지 투자계획에 따라 미국의 파리 기후협약 복귀 여부에 관심

e-sports의 성장과 한국의 위상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정 회 훈 (credit@kdb.co.kr)

◆ 세계적 스포츠로 거듭난 e-sports 시장은 미·중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중으로, 각국 정부·기업이 적극적으로 육성·투자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더욱 주목

◆ 한국은 세계 정상급 선수단과 리그를 보유한 e-sports 강국이나 미·중 시장의 고속 성장으로 글로벌 영향력이 하락세이며, 위상 회복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전략적 대응 필요

□ e-sports는 미·중을 중심으로 급성장중이며, 각국은 e-sports의 잠재력에 주목

○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e-sports는 미·중을 중심으로 시장 규모 급성장

- '90년대 후반 스타크래프트의 선풍적 인기를 계기로 한국에서 탄생한 e-sports(Electronic Sports)는 **'18년 아시안게임 시범종목으로 채택**되고, '19년 세계 시청자 수가 4.4억명에 이르는 등 대중적·세계적 스포츠로 발전
- 세계 e-sports 시장은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 중*으로, 미국은 트위치**와 유튜브로 중계 시장을 장악하였고, 중국은 전용 경기장 설립, 지역연고제 도입 등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 속에 6억명의 게임 인구와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를 보유한 e-sports 중심지로 부상

* 골드만삭스는 세계 e-sports 시장 규모가 '19년 1.4조원에서 '22년 3.6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자료 : 트렌드메이커('20.5.14), "판 커지는 e-sports, 글로벌 주류 스포츠로 발돋움")

** 게임 생중계에 특화된 방송 플랫폼으로, 세계 이용자 수 5억명 이상으로 추산

주요국 e-sports 시장 규모 ('18년)

(단위 : 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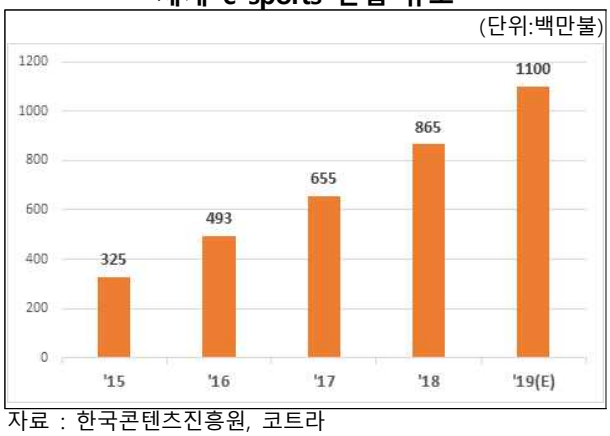
구분	미국	중국	한국	영국	일본
e-sports 시장	222	151	103	28	16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해외콘텐츠 시장 분석"

○ 각국 스포츠·산업계도 e-sports 진출에 적극적이며, 코로나19가 호재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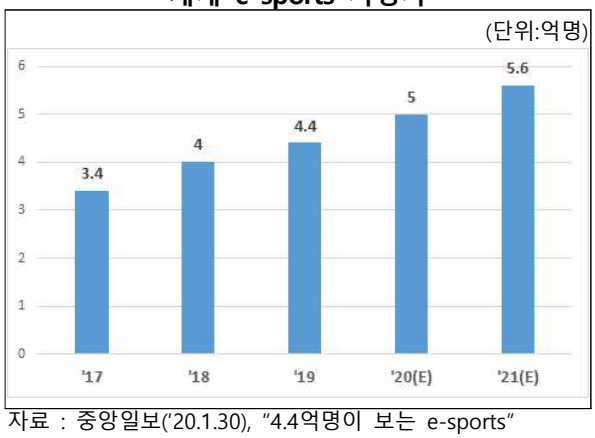
- 세계 각국은 e-sports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축구팀 맨체스터 시티가 피파온라인 팀을 창단하고, BMW가 국내 프로 게임단인 SKT T1과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통 스포츠구단 및 글로벌 기업의 e-sports 진출 활발
- 코로나19로 전통 스포츠가 중단되고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신체접촉과 시공간 제약이 없는 e-sports는 반사이익을 누리며 급성장

세계 e-sports 산업 규모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코트라

세계 e-sports 시청자



자료 : 중앙일보('20.1.30), "4.4억명이 보는 e-sports"

□ 한국은 e-sports 강국이나 글로벌 주도권 회복 위한 국가적 노력 필요

○ 한국은 세계 정상급 선수와 리그, 글로벌 팬층 보유

- 한국은 e-sports 종주국이자 시장 규모 세계 3위의 e-sports 강국으로서, LoL(리그 오브 레전드)* 명문 구단, SKT T1이 소속된 세계적인 리그와 롤드컵 최다 우승자 Faker(이상혁)로 대표되는 우수한 선수들을 보유

  * e-sports를 대표하는 게임으로, LoL 월드 챔피언십(별칭 롤드컵)은 세계 최대 e-sports 대회임

- 세계 정상급 실력을 갖춘 한국 선수들은 글로벌 팬덤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 e-sports 리그의 인기*는 매우 높은 편

  * '20년 LoL 챔피언스 코리아 결승전은 세계 1,787만명이 시청(자료 : 조선일보('20.5.2), "한국 e-sports 생중계에 지구촌 1,780만명이 접속했다")

○ 미·중에 밀려 글로벌 영향력 감소중이나 정부·기업의 전략적 대응으로 주도권 회복 기대

- 국내 e-sports 산업은 '14년부터 '18년까지 **연 17%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블리자드(美)·텐센트(中) 등 글로벌 게임사와 풍부한 인구, 자본력을 보유한 미·중 시장이 초고속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미·중 대비 점차 감소하는 추세

  * '14~'18년 e-sports 시장 연 성장률 : 미국 41.1%, 중국 49.8%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해외콘텐츠 시장 분석")

- 정부는 게임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인식하고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20.5.7)을 발표하였으며, e-sports 대회 활성화, 전용 경기장 구축, 선수보호 체계화 등 e-sports 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

- 글로벌 주도권 회복을 위하여 우수 인재 양성, MMORPG*에 편중된 국산 게임 장르 다양화,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등 정부·기업의 적극적 노력 필요

  * 온라인상에서 여러 플레이어가 동시에 즐기는 역할 수행 게임으로 '리니지'가 대표적

국제금융시장 7월 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김 혜 진 (ghjkim@kdb.co.kr)
정 대 형 (wellbaby@kdb.co.kr)

◆ **(환율)** 달러화는 EU의 경제회복기금 합의, 미국 GDP성장률 급락 등으로 약세를 보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미-중 긴장 등으로 하락세가 제한되며 달러화 대비 소폭 하락

◆ **(금리, 주가)**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대체로 하향추세를 보인 반면, 선진국 증시는 뚜렷한 경향성 없이 주가 관련 뉴스에 따라 등락을 반복

□ (환율) 달러화 가치는 유로화 강세, 2분기 미국 GDP성장률 급락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중 긴장의 영향으로 1,200원 부근에서 등락하다 월말 미국 GDP성장률 발표 이후 하락

○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 강세, 안전자산 선호 약화, 미국 경기부진 우려 등의 영향으로 '18.5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

* 메이저 6개 통화(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네) 대비 달러화 가치

- EU 회원국의 경제회복기금 합의(21일)로 유로화 가치가 상승하였으며, 일부 제약회사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3상 임상시험 착수로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
- 30일 발표된 미국 2분기 GDP성장률(예비치, 연율)*는 △32.9%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상무부가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 기록

* 미국 GDP성장률 추이(전기대비 연율) : '19.3Q 2.6% → '19.4Q 2.4% → '20.1Q △5.0% → '20.2Q △32.9%

○ 엔화는 약세요인(백신 개발 기대)과 강세요인(미-중 긴장)의 혼재로 중순까지 보합세를 보인 후 월말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강세 시현

○ 유로화는 공동재정정책인 경제회복기금 합의 도출로 큰 폭의 강세 시현

- 공동채권 발행, 피해국에 대한 무상보조금 지원 등이 경제회복기금의 주요 내용으로,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를 유럽의 "해밀턴 모멘트"*로 평가

* 독립전쟁 이후 여러 주들의 부채가 급증하자 미국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각 주의 부채를 연방국채로 통합하여 연방국가의 결속력을 강화

· 통화정책과 달리 통합되지 않은 재정정책은 그간 유로화 약세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이번 합의의 영향으로 통합재정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

주요 선진국 통화 환율 추이

	'18년말	'19년말	'20.6월말	'20.7월말	전월대비
달러 인덱스	96.140	96.479	97.360	93.470	△4.00%
엔/달러	109.61	108.66	107.91	105.87	△1.89%
달러/유로	1.1456	1.1219	1.1236	1.1772	+4.77%

자료 : 연합인포맥스

○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중 긴장*의 영향으로 하락이 제한되며 1,200원 부근에서 등락하다 월말 미국 GDP 발표 이후 장중 1,180원대까지 하락

* 미국의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24일)에 대응하여 중국도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

- 7월 외국인 주식투자*가 순매수로 전환된 것도 환율 하락에 기여

* 외국인 주식 순매수 추이(조원) : 3월 △12.5 → 4월 △4 → 5월 △3.9 → 6월 △1.2→ 7월 +10

원화 환율 추이

	'18년말	'19년말	'20.6월말	'20.7월말	전월대비
원/달러	1,115.7	1,156.4	1,203.0	1,191.3	△0.97%
원/엔	1,017.9	1,064.2	1,114.4	1,124.8	+0.93%

자료 : 연합인포맥스

□ (금리)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7월 중 대체로 하향추세를 보이면서 비관적인 경기전망을 반영

○ 미-중 갈등 심화,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2분기 미 기업실적·GDP 발표, 29일 FOMC의 금리동결 유지 등 하락요인 속출에 따라 월초 대비 10bp 이상 하락

- 특히 30일 미국 2분기 GDP가 '47년 분기별 성장률 집계 이래 최악인 △32.9% 수축*을 보이자 31일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3.9일 이후 최저치인 0.522%까지 하락

* 전기 대비 연율

□ (주가)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 증시는 호재와 악재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혼조세를 시현 중

○ 경제 펀더멘털보다는 코로나19 확산 추이, EU 경제회복기금 타결, 2분기 실적 발표 등에 따른 투자심리 변동이 주도하는 유동성 장세 양상

- 여기에 미-중 갈등 및 美 대선 등 하반기 대형 외생변수에 대한 다양한 전망까지 가세하여 뚜렷한 추세를 찾기 힘든 주가변동 시현

주요국 국채 금리 및 주가 추이

		'18년말	'19년말	'20.6월말	'20.7월말	전월대비
금리 (%)	미국채 10y	2.6842	1.9175	0.6561	0.5282	△12.79bp
	독일채 10y	0.2420	-0.1850	-0.4540	-0.5240	△7.00bp
	일본채 10y	0.0030	-0.0110	0.0280	0.0200	△0.80bp
주가 (pt)	다우존스	23,327.46	28,538.44	25,812.88	26,428.32	+2.38%
	유로 Stoxx 50	3,001.42	3,745.15	3,234.07	3,174.32	△1.85%
	Nikkei	20,014.77	23,656.62	22,288.14	21,710.00	△2.59%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시장 8월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김 혜 진 (ghjkim@kdb.co.kr)
정 대 형 (wellbaby@kdb.co.kr)

◆ **(환율)** 달러화의 추가 약세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원/달러 환율은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의 혼재로 박스권 내에서 등락할 전망

◆ **(금리, 주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된 장기금리 변동성 지속이 예상되며, 증시는 미 실업수당 지급 연장 여부 등의 향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환율) 달러화 가치 하락을 주도하였던 유로화 강세가 추가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중 긴장 고조, 수출회복 지연 등 상승요인의 영향으로 박스권 내에서 등락할 전망

○ 달러화 : 추가 약세 제한

- 최근의 달러화 약세는 유로존의 재정통합 기대로 인한 유로화 강세와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른 경제전망 악화 등에 기인
  · EU 경제회복기금 합의 도출과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대립으로 추가부양책 합의에 난항을 보여 유로화의 상대적 매력이 부각
- 그러나, 유로화 강세에 부합하는 수준의 유로존 펀더멘털 개선이 단기간 내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유로화 추가 강세 가능성은 제한적
  · 유로존의 '20.2분기 GDP성장률(전분기 대비)은 △12.1%를 기록하였으며, 유럽 증시*는 유로화 가치 급등과 대조적으로 7월말 하락

* 유로 Stoxx 50 지수 추이(pt) : (7.1일) 3,228.45 → (21일) 3,405.35 → (24일) 3,310.89 → (31일) 3,174.32

- 한편, 미 의회의 추가부양책 승인 시 달러화의 강세 전환 예상

○ 엔화 : 소폭 약세

- 약세요인(일본 경기 부진 우려)과 강세요인(미-중 긴장)이 혼재하나, 전월의 강세에 대한 조정 예상

○ 유로화 : 추가 강세 제한

- 최근 급등에 대한 조정 가능성, 영국과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한 어려움 등으로 유로화의 추가 강세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

* 영국과 EU는 12.31일까지 탈퇴 이행기간을 갖고 미래관계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이후 화상회의로 협상을 진행하다 6월말부터 대면회의 재개.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알려지면서 노딜(no deal)에 대한 우려 대두

○ **원/달러 환율 : 박스권 내 등락**

- 달러화 약세 등 하락요인에도 불구하고 미-중 긴장 고조 가능성, 수출 회복 지연* 등의 영향을 받아 박스권 내에서 등락할 전망

* 수출증감률(%) : (3월) △1.6 → (4월) △25.5 →(5월) △23.7→ (6월) △10.9 → (7월) △7.0

· 지지율이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미-중 긴장과 관련하여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보일 경우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상승압력 예상

□ **(금리, 주가) 장기채권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지속되고, 증시에서는 미 실업수당 지급 등 코로나19 관련 조치의 유지 여하에 따라 주가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

○ **금리 : 장기채권 시장의 변동성 지속**

- 미 대선 관련 경제부문 비전 제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진척 소식 등 수익률 상승요인과 실물경제 부진, 팬데믹 확산, 미-중 갈등 격화 등 수익률 하락요인이 공존하며 불확실성 지속

○ **주가 : 소득절벽 관련 소식에 따라 등락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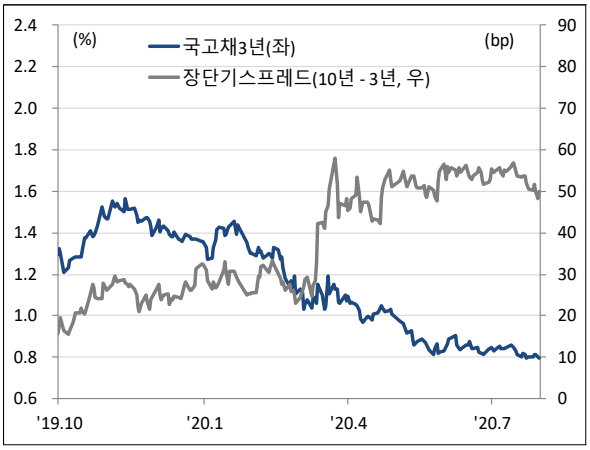
- 투자심리에 크게 영향받는 유동성 장세인 만큼 실업수당 지급* 연장 여부 관련 미 의회 논의의 결과 등에 따라 주가의 움직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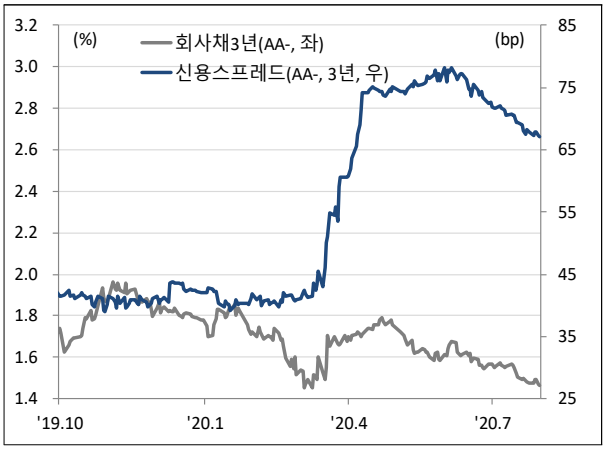
* 코로나 경기부양 패키지(CARES Act)의 일환으로서 7.31일까지 주당 600달러의 실업급여 지급

(담당자 : 환율 - 김혜진, 금리·주가 – 정대형)

금리 · 환율 ·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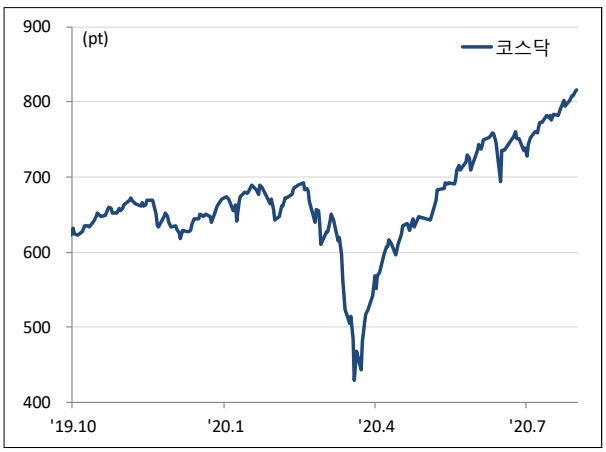
금 리 국고채3년 0.796% (0.3bp ⬇), 신용스프레드 67bp (0.9bp ⬇)





환 율 원/달러 1,191.3원 (10.2원 ⬇), 엔/달러 105.87엔 (0.25엔 ⬇)

주 가 코스피 2,249.37pt (2.22% ⬆), 코스닥지수 815.3pt (2.58% ⬆)



* ( )는 전주대비 상승↑, 하락↓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제889호

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문의 787.7826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